

2018년 5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8.5.31.(목) 오전 10:3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심층성 확보

- 가짜뉴스 및 오보 대응 관련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오보,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다분한 가짜뉴스를 따라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하고 특히 남북미 정상외교 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함. 사후 A/S보도 적극 활용 필요(권영후 부위원장)
- 경제 통계 보도에서 발표 기관의 보도자료 소개에 그치는 경향이 있음. 경기 선행지수, 소득 분위별 분포, 최저임금 등 민감한 경제 동향 통계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과 해석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하며 보수적 시각에서 단기적인 비관적이고 부정적 전망이 부각된 것으로 보임. 최저임금 효과 관련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 감안, 중장기적 전망을 심층 보도할 필요가 있음(권영후 부위원장)
- 석탄일 9시 뉴스에서 보도한 드루킹 변호인 사임과 관련하여서는 단순 사실만을 보도하였으나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능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적 권리인 한 기존에 선임되어 변호를 담당하던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관련자들이 권력 핵심부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취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함.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당사자들을 만나 인터뷰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판단임(최신용 위원)
- 29일 뉴스에서 대통령은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법에 금지돼 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의 재량권을 강조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규제는 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하고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 모든 곳에서 발생했음. 그리고 이런 규제 레짐은 일정 기간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또 반드시 변화함. 따라서 반드시 엄격하게 법적 근거에 의하여 규제하고 완화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헌법적, 민주적 기본 가치임. 규범적인 면에서 신고전주의자들은 거버넌스의 주된 목적은 시장실패의 시정에 있다고 주장함. 즉, 시장실패로 인한 복지의 손실을 공익을 추구하는 전지전능한 국가가 보정할 수 있다는 것임.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가의 선의를 믿고 국가는 공익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해 버리는 데 있음.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가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경우 보도는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함께 제시하여야 함. 만약 국가나 규제 주

체가 자의적으로 규제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보도를 지향한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정부 부처의 이견도 함께 보도해야 할 것임(최신용 위원)

▲ 반복보도 지양하고 뉴스특보 및 진행 개선해야

- 뉴스채널 특성상 뉴스의 반복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차별을 고려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생산된 뉴스 필름을 무조건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음. 아침 혹은 오전의 첫 보도 내용이 시간이 진행되는 것은 무시된 채, 멘트나 필름이 반복 방영되어 뉴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음. 오전의 환경에서 리포트 하는 기자가의 영상이 저녁 늦게 까지 방영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저하됨. 경우에 따라서 사건의 발생이 아니라 진행이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 사건의 발생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사고 관련 보도에서 사상자 등이 나왔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궁금한데 사건자체만 반복보도 한진 관련 인사 검찰 출두의 경우 출두 보도만 반복되는데 언제 조사가 끝나는지 혹은 끝났는지에 대한 내용은 부재였음(이우영 위원)
- 북미정상회담이 전격 최소 사실이 전해진 24일, 연합뉴스tv는 나름 발 빠른 대처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음. 종편과 뉴스전문채널 중에서는 jtbc(3.5%) 다음으로 높은 2.3%였다. 공중파인 mbc와 맞먹는 시청률이었음. 조선tv는 2.0%에 그쳤음. 굳이 이 사실을 거론하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이 방송사의 규모와 지명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줬기 때문임. 시청자들은 그 대신 주요 현안에 대해 얼마나 신속하고 짜임새 있게 대처했느냐를 보고 채널을 선택했음. 시청률이 1, 2위였던 kbs1과 sbs는 가장 신속하게,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뉴스특보를 보냈고. 3위를 한 jtbc는 sbs보다 24분 늦은 11시42분부터 1시간 동안 짜임새 있는 특보를 내보냈음. mbc는 jtbc보다 3분 빨리 편성했지만 7분간 속보를 전하는데 그쳤고. mbc는 2.3%로 jtbc의 3.5%에 한참 뒤졌음. 조선tv는 새벽 1시부터 37분간 특보 체제로 방송했지만, 너무 늦은 탓에 1.1%에 불과했음. 연합뉴스tv는 신속한 대처가 돋보였지만, 내용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음. jtbc는 청와대 출입기자와 북한 전문가 등을 전화로 연결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현장을 취재하던 외신기자들의 반응을 전하는 등 관련 정보를 다각도로 전했다. 연합뉴스tv는 건조한 정보만 반복해서 전했다. 참고로 미리 모든 매체에 공지된 27일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브리핑) 생중계 시청률은 KBS1 6.7%, SBS 6.6%, MBC 4.8%, JTBC 2.4%, TV조선 2%, YTN 1.9%, MBN 1.2%, 채널 A 1.2%, 연합뉴스tv 1.1%이었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시청자들이 어떤 매체를 선택하는지 잘 보여주는 지표였음. 연합뉴스tv가 당면한 지형은 매우 불리함. 앞으로 돌발적인 이슈의 보도에서 신속성과 함께 풍부

한 편성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함(곽병찬 위원)

- 앵커는 뉴스의 진행자이자 방송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누구보다 발언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함. 개인적 발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기자들이 보도하는 뉴스의 흐름을 벗어나서는 곤란함. 5월30일 아침 라이브투데이 프로그램에서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이 일부 재판을 매개로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TX하고 송무원과 전화인터뷰가 진행됨. 이 사안은 사법부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지만 아직은 사안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 현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앵커는 "셀프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면 대법원에서 당시에 그런 판결을 내린 정확한 배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음. 사법부 전 수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 사법부와 검찰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 당사자가 거론하지도 않은 '구속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앵커로 먼저 거론하며 질문하는 것은 성급하고 경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배정근 위원)

▲ 뉴스소재의 균형과 보도의 차별화 전략

- 대부분의 뉴스가 정치, 북한 핵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에 국한되고 스포츠 뉴스 한두 꼭지와 날씨임. 경제, 문화, 예술 등 다른 분야의 보도도 있으면 함(하규섭 위원)
- 대부분의 뉴스가 정치, 북한 핵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에 국한되나 보니 그렇기도 하겠지만, "생기는 일을 (수동적으로) 보도"하는 방식임. 시청자에게 필요한 뉴스를 "발굴"할 수는 없는 것일까? 특히 경제, 문화, 예술 분야 등에서 그러함(하규섭 위원)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뉴스~" 식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차별성이 부재함. 구성도 대동소이 보도프로그램이 기본적인 팩트 전달이라고 할지라도 프로그램별로 분석이나 해설이 중심이 되거나 어떤 프로그램은 논쟁을 지향하거나 하는 등 차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경쟁사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평이하여,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루함. 진행자들도 천편일률적인데, 나름의 '스타'를 만들어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쟁사는 개인 이름이 프로그램 운영진행자의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함(이우영 위원)
- 주요 사안의 뉴스를 여러 기자가 보도할 때 보다 종합적 보도 계획이 필요함. 5.22 출발 640 뉴스는 "홍문종, 염동열 의원 구속 동의안 국회 부결" 관련 보도를 하면서 두 명의 기자가 각각 다른 측면의 보도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어서, 사전에 보도 계획이 종합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었음.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뉴스를 보도할 때 그와 같은 경우가 가끔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긴급 뉴스 보도시 취재 조정 역할을 하

는 사령탑이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보임(오준 위원장)

- 요즘 쏟아지는 북한 관련 뉴스를 보면서 전문기자의 부재에 아쉬움을 느낌. 북한 문제와 외교문제에 정통한 기자가 있어서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북한 관련 보도에 중심을 잡아주고 그때그때 유용한 해설과 분석을 곁들여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했음. 당장 연합뉴스TV에 그런 기자가 없다면 모회사인 연합뉴스 기사를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봄(배정근 위원)

▲ 자료화면, 자막, 표현 등 개선 필요

- 뉴스 사안에 따라 배경의 자료화면 전체를 부영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배경 화면 전체가 부영게 보이니까 시청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적합한 화면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음(김석민 위원)
- 그래픽에 대한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보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래픽이 중요한데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음. 25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기사 내용에서 강도에 대한 그래픽으로 장면을 보여주면 더 좋았을 것(배정근 위원)
- 자막 뉴스 작성의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5.5 오전 라이브 투데이 뉴스는 대한항공 조현민 관련 보도 중 일부 청와대 청원 내용이 3권분립 상 문제가 있는 "사법부" 소관 내용이라고 하면서 자막에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나와서, 자막 작성자가 사법부와 법무부를 혼동한 것으로 보임. 순발력 있게 제작되어야 하는 자막 뉴스도 보도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작성자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됨(오준 위원장)
- 5월1일은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알고 있음. 방송에서 노동절로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됨. 또 조어를 사용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봄니다. 예를 들면 "줄인상" 같은 것은 줄줄이 인상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 국어 사전에 없는 표기라고 봄(김석민 위원)
- 보도량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방송 특성상 메인뉴스에서 다루지 못하는 중요 뉴스들을 커버하는 유용한 수단이 스크롤바 자막뉴스임. 그런 만큼 스크롤바에 등장하는 뉴스의 선택은 메인 뉴스만큼 엄격한 뉴스가치 기준을 적용해야 함. 그런데 간혹 보면 뉴스성보다는 홍보성이 강한 가볍고, 사소한 기사들이 등장함. 5.18일 스크롤바 자막에는 산업부 장관이 태국과 전기차에 대한 협력을 모색한다는 기사, 환경부와 환경기술인협회가 부패방지 협약을 했다는 기사, 오뚜기 기업이 무슨 라면을 가지고 인도시장에 진출한다는 기사가 연이어 나갔다. 그날 다루지 못한 중요한 기사가 이것들 밖에 없다고 생각되지 않음. 기사를 나열 하는 순서도 문제가 있었다. 아무리 스크롤바 기사라고 하더라도 서로 관련이 있는 기사는 인접하게 보도해야 하는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의 영장신청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박한다는 기사 다음에 강남역 2년 추모

제 기사 나가고, 다음에 강원랜드수사단이 권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는 기사가 흘러갔음. 사소한 문제지만 무신경함이 아쉬웠음(배정근 위원)

-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를 보도하는데, 다소간 혹은 다분히 "감정적인" 톤으로 보도하거나, 자막을 내보내는 경향이 있음. 특히 이번에는 한진가 모녀들에 관한 보도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 혹은 "여론재판"에 동참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음. 그 사람들이 잘 한 것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비중으로 다루거나 감성을 자극하는 듯한 보도 방식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음(하규섭 위원)

▲ 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의견

- 청와대는 29일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가짜 뉴스 혹은 위험스런 보도에 대해 경고했음. 청와대가 거론한 기사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취재 언론사에 1만 불을 요구했다, 핵실험장 폭파 때 내부는 폭파하지 않고 연기만 피웠다, 트럼프의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정원 팀이 북한으로 달려갔다 등이었음.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될 북미정상회담이 위태롭게 추진되고 있음. 말 몇 마디에 회담이 취소되고, 몇 마디 말에 회담이 되살아날 정도임.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생각한다면 언론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 보도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함. 공영매체의 역할은 더 크다. 사실 보도를 떠나 논란이 되는 뉴스에 대해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임. 같은 업종 종사자라는 동료의식 때문에 가짜 뉴스를 못 본 척 지나가서는 안 됨. 일부 매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팩트체크류의 프로그램을 신설해,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를 가려내주는 것도 검토하기를 바람(곽병찬 위원)
- 지방선거 보도에서 남북, 북미 정담과 중앙당의 논쟁에 치중, 지방 선거는 보이지 않음. 지역 현안 이슈 발굴, 각 당의 대안과 비전을 중심으로 프라임 시간에 지방 선거 코너를 확대 운영 검토가 필요함. 지역별, 세대별 관심사항을 종합, 시청 시간대 편성에 반영하고 여론조사만 확대하는 등 경마 중계식 선정 보도 자제할 필요가 있음(권영후 부위원장)
- 북한이 고위급회담 일방취소후...남녀 앵커가 번갈아 리포팅하면서 관련내용을 자료화면과 자막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 리포팅만 이어지니 고저 없이 단조롭다는 느낌. 자료화면을 송출할 때 트럼프 목소리든 대변인 목소리든 잠깐씩이라도 담는다면 단조로움을 줄이고 인토네이션효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이경상 위원)
-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면서 반발한 내용을 빨간 펜으로 칠해가며 미국 불탄발언과 비교하며 차근차근 해설함. 청량감 있고 이해도 잘 되고 좋았음. 이런 것을 2건만 하던데.. 3건 4건으로 확대하면 어떨까함. 아니면 2건만 하되 이슈 브리핑 같은 것을 따로 만들어 별도로 2~3건 분석해 보내는 것은 어떨지. 뉴스를 다채롭게 깊이 있게 다뤄준다는 느낌 받을 것. 시청자들 입장에서 남들

보다 한발 앞선 화젯거리 생기는 셈(이경상 위원)

- 강원랜드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 관련내용을 리포팅한 다음 홍영표 원내대표가 책임 통감한다는 발언을 송출함. 발언 송출 직후 또 거의 동일한 내용을 장황하게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리포팅함. 중요기사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자가 교차 취재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겹쳐지지 않도록 역할분담이 필요함(이경상 위원)
- 이름에 미니라고 붙어 있기도 하지만 시간도 너무 짧고 다큐라기보다는 이슈에 대한 확장된 해설 정도에 불과함. 다큐라는 제목에는 부합하지 않은데, 다큐답게 하든지 아니면 제목 자체를 이슈해설 정도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나올 것임(이우영 위원)
- 공영방송 TV뉴스 시간은 정확하게 8시, 9시에 시작함. 초시계까지 보여주기도 하는 반면 연합뉴스의 경우 5월16일 '20:40 뉴스 리뷰'를 예로 들면, 20:41까지 광고, 뉴스 리뷰 오프닝 멘트, 20:45까지 다시 광고, 20:45 뉴스 시작임. 5월23일 '라이브투데이'의 경우 07:50에 시작 멘트, 07:54까지 광고, 07:54부터 뉴스 시작이었음. 광고 방영으로 예정된 시간을 몇 분씩 지나서 뉴스를 시작하기보다 예정된 방송 시간은 특히 시작 시간은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김석민 위원)

▲ 방송심의 사전 주의

- 이달 초에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사실을 보도하면서 자막에 '김경수 조사후 귀가...포항 모텔서 영아사체 발견' 식으로 이상한 자막 제목을 내보내 논란이 된 것도 같은 문제라고 봄(배정근 위원)
- 5월5일 황당한 자막이 떴음. '뉴스17'에서 김경수 전 의원의 경찰 소환조사 후 귀가 소식을 전하면서 '김경수 조사 후 귀가, 모텔서 영아 사체 발견'이라는 자막을 낸 것임. 완전히 별개인 사안, 경남지사 후보로서 드루킹 의혹에 시달리는 김 전 의원을 '포항 영아사체 발견 사건과' 연루시킨 것임. 물론 실수일 것이다. 하지만 김경수 개인에게 끼칠 해악과 연합뉴스tv 보도의 신뢰성을 감안하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음(곽병찬 위원)
- 2018. 5. 30. 늦은 오후 연합뉴스tv에서, 청와대가 문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에 대비해 현지에 직원을 파견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연합뉴스에서도 청와대가 문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에 대비해 직원을 파견했다는 제하로 기사를 썼음. 저는, 당시 mbn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보도국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연합뉴스tv 보도가 오보인지 확인한 후 보도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을 확인하다가 이는 오보라고 확인한 바 있음. 그리고 그 이후 연합뉴스tv에서도 9시 경, "청와대, 싱가포르 직원 파견은 남·북·미 회담과 무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음. 기본적으로 ytn 이나 연합뉴스tv와 같은 보도전문채널에서의 오보는 다른 종편에서의 오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지난번

에, tv조선에서 보도했던 '북이 풍계리 핵실험장 방문한 취재진들에게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오보였음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연합뉴스tv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서 그대로 받아서 보도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그 이전에도,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오보가 나와서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김경수 의원 소식에 포항 모텔 영아시체 발견 사진을 합성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었음. 실제, 트위터 등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연합뉴스tv가 고의적으로 오보를 내고,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식의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도 전문채널에서 이러한 문제는 철저히 신경 써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노영희 위원)

▲ 긍정 및 기타 의견

- 5일 9시뉴스. 북미회담도 논의 마쳤나? cvid 에서 pvid 로 바뀐 배경 등을 용어와 함께 상세한 해설을 해주어 비핵화 유형 및 수준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들에 관한 시청자들의 지적 욕구를 잘 충족시켜주었다고 판단됨(최신용 위원)
- 일요일 8시39분에 방송한 명품 리포트 기업기상도는 명쾌한 이슈를 간단하게 알기 쉽게 보도하면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적절하게 제시했음, 새로운 기업, 탈세, 갑질, 환경문제 야기 기업 등 다양하게 다룬 것도 좋았음(최신용 위원)
- 5월에는 큰 뉴스가 많았고 특히 역사의 현장을 보도하는 뉴스가 많았음. 현장에서의 방송사 위치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합뉴스TV가 공영방송보다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도 종종 보임. 차량 이동의 경우도 뒤쪽에 있기도 함(김석민 위원)

(끝).